

【 2017.6.26(월) 강원일보 】

◇오인철강원건설단체연합  
회장은 26일 오후 4시30분 도교육청에서 열리는 ‘교육시설사업 청렴협약식 및 교육감과의 간담회’에 참석.



## 경제인 동정



오인철  
강원건설단체  
연합회  
장은 26

일 오후 4시30분도  
교육청에서 열리는  
교육시설사업 청  
렴 협약식 및 교육  
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 현행법상 유찰 후 수의계약 불가... 계약 과정도 부실

### 행정부 강원도 종합감사

계약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일었던 레고랜드 진입교량 공사가 감사결과 온갖 위법 부당한 방법에 의해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015년 6월과 12월 D건설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 우선 시공분

업체전적 100%로 계약 체결

총 공사비 14억↑ 결과 초래

법령준수·재발방지 경고 처분

과 본 공사분을 각각 55억원, 778억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는 도가 2차례 입찰을 진행했

으나 모두 유찰되자 터키방식으로 D건설사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두차례 유찰이 되더라도 현행법상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고 입찰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 또는 재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부와 회계부서에서 최문순 지사에게 기획재정부 유권해

석을 들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후 위법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수의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비교 검토 후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함에도 도는 우선시공분은 업체 견적금액의 100%로 계약하고, 본 공사분은 아무런 기준없이 협상에 의해 98.39%에 계약해 공사비가 총 14억원이나 높게 책정되는 결과를 초래

했다. 도가 수의계약의 이유로 공사기간 부족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3년 10월 모그롭과 2017년 3월까지 진입교량을 준공하기로 협약하고 늦어지면 도에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으나 실제 공사 계약서에는 준공기간이 2017년 8월로 5개월이나 미뤄졌다. 행정자치부는 도에 법령준수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기관경고 처분했다. 백오인

# 유주현 건협 회장, 文 대통령과 訪美 길 '동행'

유력 경제인단 52명에 포함  
韓美 '비즈니스 서밋' 참가  
美 건설시장 진출 등 타진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유력 경제인들과 함께한다.

유 회장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문 대통령과 함께 재계를 대표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제인단 52명에 포함됐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양호 한

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대거 참가한다.

이번 방미 경제인단은 미국 관련 투자나 교역, 사업실적, 사업 계획, 첨단 신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협회나 단체가 아닌 기업 위주로 선정됐다.

유 회장도 공식적으로는 신한 건설 회장 자격이다. 유 회장은 미국 방문기간 중 2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비즈니스 서

밋'에 참석한다. 또 현지 건설 관련 인사들과 만나 우리기업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 확대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설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의 대표 수혜 산업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1000억~2000억달러의 연방예산을 투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세액공제 등의 유인책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회장 외에도 건설 관련 기업인으로는 이기승 한양 회장, 박성택 산하 회장 등이 방미 경제인단에 포함됐다.

이 회장은 여수 묘도 에너지허

브 개발과 관련, 미국의 셰일가스 수입을 타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레미콘업체가 아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자격으로 경제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공기업으로 유일하게 방미단에 참가한다. 가스공사는 미국 셰일가스 추가 도입 계약을 논의한다.

반면 한국철강협회 회장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방미 경제인단에서 제외됐다. 포스코는 연간 100만t 이하 철강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반덤핑 관세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태형기자 kth@